



오시와 마리 지음/김영 울림
280쪽/15,000원

일본 보수파가 가장 경계하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의 일본 복지체계에 대한 종합 분석서

신자유주의적 ·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복지 체계를 말한다

“단지 시장의 폭주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 보편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생활을 보장해야 할 체계가 오히려 생활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는 사회, 그것이 일본 복지의 현실이다.”

“물랄 만큼 한국 사회의 현실과 닮아 있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사회의 초상”



선진국 일본의 복지 시계는 거꾸로 돈다

양극화, 비정규직화, 신자유주의화, 민영화, 성장 제일주의, 자살 대국, 저출산고령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는 키워드인 것 같지만, 현재 일본 사회와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폭증하고 워킹 푸어(근로 빈곤층), 네트 난민(일용 노동자, 호출 노동자 등 거주지를 얻을 돈이 없어 PC방 등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2008년 말에는 ‘헤 넘기기 파견론(기업에서 숙소를 제공받던 파견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면서 생겨난 임시 거주지)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경기 불황에 대한 처방책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선택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두터운 중산층을 자랑하는 사회가 아니게 되었다. 오히려 일본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는 2002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호황’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을 주요 항목별 기여도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수출이 무려 60퍼센트를 차지했고, 이전에는 절반에 가까웠던 민간 소비의 기여도는 36%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경기회복은 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의 급여는 크게 증가시켰지만, 고용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으며, 노동자의 실질소득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호황의 혜택을 실감할 수 없는 ‘고용도/기쁨도 없는 경기회복’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재정정책과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억제시키는 방향을 취했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일본 복지 사회의 현실

: 중산층 많은 일본 사회? 남성 정규직 노동자만의 평등이었을 뿐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일본 사회의 변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한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의 야심 찬 연구 결과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정책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저자는 현대 일본의 남성 생계부양자형 생활보장체계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를 넘어 전체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경제정장이 복지를 대체하고 중년 남성 노동자만을 가족의 생계 부양자로 간주하여 그들에게만 좋은 일자리와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보장체계가, 나머지 대다수 사회 성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년 남성 노동자에 치중한 사회보장체계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비정규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이는 또다시 사회 보장제도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젠더 관계를 일국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 방향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의 생활보장체계가 그 어떤 선진국보다 강고한 “남성 생계부양자형”이라는 점을 포착해 낸 것이다. 여기서 젠더 관계란, 단순히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그 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한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성별과 가족 내 지위를 기준으로 사회 성원을 위계적으로 배열해 통합하는 남성 생계부양자형 젠더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현대 일본 사회의 구조와 그 속에서의 삶에 대해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 사회를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규정해 왔던 ‘1억 중층류’라는 말 역시 허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 일본 사회의 상대적 평등도 남성, 정규직 노동자 간의 평등, 남성 기구주 간의 평등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밖의 특징들

사회정책을 전공한 경제학자가 제시하는 현실적 대안들

: 엘리트 정책가가 아닌 복지제도 사용자가 직접 설계하는 복지 사회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정책학자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정부기구에 참여하면서 사회정책 무대에서 직접 활동해 온 활동가로서 저자는 사회정책이 이런 현실을 강화시켜 온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정책적 제언도 잊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적인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 연구서와 달리 전문가가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설파하는 대신, 개개인의 사회 성원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생활보장체계를 구성할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남다르다. 개개인의 필요는 본래 “개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안 되므로, 개개인의 사회 성원이 단순히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사용자이자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미 복지국가의 틀을 넘어선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유형화

현재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경험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민족주의적 반감에 얽매어 객관적인 연구가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도 못하다. 이 책은 일본 사회의 정책 동향과 사회상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서일 뿐 아니라 구미 중심의 이론적 분석틀을 넘어서서 자국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저자의 고민과 성과가 드러나는 연구라는 점에서 한국 복지 연구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년에 걸친 저자와 역자의 소통의 산물

: 한국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번역서

저자와 역자의 10여 년에 걸친 친밀한 관계와 이를 통해 서로가 주고받은 학문적 영향은 이 책을 번역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1년여에 걸쳐 역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저자와 함께 문장을 검토하고 수정과 부연 설명을 요청하는 등 번역 이상의 상의를 거듭하며 번역 작업을 진행시켰다. 그 결과 이 번역본은 원문의 상당 부분이 기필수정된 번역본이 되었으며, 그 어떤 번역서보다도 저자의 의도가 최대한 살아있으면서도 한국 독자들이 읽기에 적절한 책이 되었다.

지은이 오사와 마리(大澤真理)는

일본을 대표하는 젠더 연구자이자, 사회정책학자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젠더 연구자로 연구 경력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학부 시절에는 근대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구빈법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로 1987년 도쿄대 경제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사회정책 전문기로서 연구자의 길에 들어섰다. 현재는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원 교수로 있다.

오사와 교수가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는 상당히 흥미롭다. 시작은 30대 초반에 배우기 시작한 요가 수업에서부터였다. 수업에서는 정확한 자세를 위해 몸에 딱 달라붙는 레오타드를 입도록 했는데, 오사와 교수는 이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저항감의 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스로의 신체를 직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회피하려 했으며, 그러한 태도는 여성이 열등한 성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공부는 물론이고 피아노에 운동까지, 시도했던 모든 것에서 인정받았던 자신은 성차별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성차별의 희생자인 동시에 성차별의 주체이기도 했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오사와 교수는 젠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젠더 연구를 시작한 초기부터 오사와 교수는 중요한 획을 긋는 연구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는 남성 노동자의 문제를 보편적인 것으로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특수한 것으로 지칭하는, 당시 일본 여성 노동 연구의 주류였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을 비판하는 논문이었다. 그 논문은 '보편' 또는 '전형'으로 명명되던 남성 노동자의 상황이 사실은 "신체 강한 남성 청장년층"의 상황으로 성인 남성 중에서도 (노년기가 제외된) 특정 단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상황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 자체가 '특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1993년 저서 『회사인간사회의 성』(會社人間社會を越えて(時事通信社)(번역본은 『회사인간사회의 성』, 1995, 나남)은

젠더분석의 관점에서 일본의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을 분석한 예리한 저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0년 초반까지 오사와 교수는 사회정책연구 외에 일본 사회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본질을 가장 신명나게 드러내는 지점으로서는 파트타임 노동에 관한 분석에 집중한다. 특히 1993년부터 1994년에 걸쳐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의 닛타 미치오 교수와 벌인 일련의 파트타임 노동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은 매우 유명하다. 이 논쟁에서 오사와 교수는 파트타임 노동이 노동시간의 길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호칭에 의해 기업 내 지위와 처우가 결정되는 '신분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닛타 교수는 주부 파트타임 노동자는 '전형적 노동자'가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의 무임승차자'라며 오사와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오사와 교수는 무엇이 전형이며, 누구의 전형인가에 관한 이론적 반론을 펼쳤다. 1990년대 후반에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미즈마치 유이치로 교수의 '구속성' 논의에 대해 반론을 전개하는 등, 일본의 파트타임 노동의 특성이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남성 생계부양자의 피부양자 배우자 자리로 쿠한시키는 사회정책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밝히는 수많은 저작을 산출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오사와 교수는 연구 활동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의회 참여 등을 통해 정책 활동 또한 왕성히 전개해 왔다. 199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공동참여 사회기본법>의 제정을 주도하고 시행 과정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연금부회의 구성원으로 2004년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때문에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연구자 중 한 명이 되기도 했고, 일본 우익으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아 한 동안 경시청의 밀착 수행을 받기도 했다. 모순적이지만 사실 이 책은 그러한 공격과 배제의 산물이기도 하다. 아베 전 수상은 "오사와 마리와 같은 급진적 페미니스트가 정부의 여러 심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했고, 그 결과 '기쁘게도' 오사와 교수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연구 활동에 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정치적 동향을 보면 '불행히도' 오사와 교

수는 더 이상 연구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오사와 교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 주당의 정책 수립에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 주요 저서로는

『영국사회정책사 : 구빈법과 복지국가』イギリス社會政策史—救貧法と福祉國家(1986, 東京大學出版會), 『기업 중심 사회를 넘어 : 젠더로 읽는 현대 일본』企業中心社會を超えて : 現代日本をくじエンターで読む(1993, 時事通信社), 『남녀공동참회사회를 만든다』男女共同参画社會をつくる(2002, NHKブックス) 등이 있으며, 한국에는 『회사인간사회의 성』(1995, 나남)이 소개되어 있다. 최신작으로는 『생활 속의 협동 : 배제를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生活の協同 : 排除を超えてともに生きる社會(2007, 日本評論社)이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윤진이 김영은

20대는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운동에 몸담고 있다가 뒤늦게 서울대 사회학과에 진학했다. 기존 여성의 비정규 노동과 관련한 일본 사례 연구를 위해 도일하여 오사와 마리 교수를 만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논문 “일본의 성별체계와 파트타임 노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의 10대 대형 마트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오면서,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기반한 연구, “Personal Management Reforms in Japanese Supermarkets : Position Warfare and Limited Assimilation of Conversational Communities”로 *SSJ(Social Science Japan Journal)*에서 주는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고, 일본 사회정책학회지에 논문 “均衡を考慮した処遇制度と働き方のジェンダー化—大手スーパー企業の新人事制度分析を中心に”를 게재했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젠더 관계가 한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특히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와 제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부산대 사회학과에서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

차레

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장 사회적 배제와 생활보장체계

1. 복지국가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2. 경제 위기와 사회적 배제
3. 생활보장과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제2장 1980년대 생활보장체계 유형론과 일본

1. 에스핑-안테르센의 유형론의 재구성
2. 생활보장체계의 세 가지 유형 : 남성 생계부양자형, 양립 지원형, 시장 저항형
3. 일본 생활보장체계의 구성 요소

제3장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

1. 세 개의 경로와 일본
2. 남성 생계부양자형의 고착화 : '생활대국 5개년 계획'에서 '하시모토 6대 개혁'으로
3. 고용 합리화와 결혼 합리화

제4장 21세기로의 전환기 일본의 생활보장체계

1. 네 가지 생산관계의 비중
2. 고용 성과
3. 작은 복지 정부의 특징

제5장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 정책

1. 고이즈미 내각의 연금 개혁
2. 사회보험제도의 공동화
3. 배제의 장치가 된 사회보험제도

제6장 배제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1. 보편적 서비스와 일원적 연금
2. '생활' 속의 합동의 실천

후기

역자 후기